

막걸리 라벨 수시 교체... 업계 '골머리'

표시 기준 7개 부처... 표시내용·시행시기 '제각각'

막걸리병에 붙이는 라벨 표시기준 관련부처가 7곳이고 표시내용 및 시행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영세 막걸리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걸리 라벨 표시기준 7개 부처는 국세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다.

도내 막걸리 제조업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고시했다. 이달부터 모든 사업자가 바뀐 표시기준에 맞춰 새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고시가 전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9일, 어색한 어법을 수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과음 경고문구 3개 중 하나를 다시 바꿔 고시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한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한 막걸리업체 대표는 "내용상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법을 문제 삼아 재개정하는 것은 업계의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면서 "라벨을 폐기하거나 신규 제작

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정부에서 일정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 9월부터 농식품부 시행령에 맞춰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에서 '외국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3개 부처가 연달아 표시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다.

단순 교체뿐만 아니라 재고라벨 폐기에도 큰 비용이 든다.

올 2월 한국막걸리협회가 32개 영세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번 과음 경고문구 변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라벨을 버리는 데 들어갈 비용만 3억원에 달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라벨을 한꺼번에 연 단위로 다량 인쇄하는 영세업체의 사장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도 현실적으로 재고를 다 소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막걸리 업체 관계자는 "영세한 막걸리업체들의 손해가 너무나 크다"면서 "표시기준 변경을 타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관리로 한번 라벨을 바꾸면 최소 5년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서로 관장하는 부분이 달라 업무를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은 상표·용도 구분 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복지부는 과음 경고문구, 식약처는 유전자변형, 농식품부는 지리적·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주농협, 로컬푸드 평화점 개점식

정육 식당·키즈 카페·미용실·극장 등 차별화

전주권역 취약농과 소규모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소득을 높여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농협이 3일 평화동 꽃밭장이 사거리변에 로컬푸드 평화점의 개점식을 가졌다.

강태호 농협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500여 내빈이 참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로컬푸드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전주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축하했다.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농민 조합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터를 제공하는 6차

산업"이라며, "향후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팔아주는 것을 주어진 사명으로 삼고 10여 곳의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농협 로컬푸드 평화점은 차별화 된 로컬푸드 매장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육식당과 키즈카페, 미용실,극장 등 건물내 입주중인 업체들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도입한 복합형 로컬푸드 형태로 지난 2월 16일 임시 오픈을 해 매일 평균 2,000만원을 상회하는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어, 향후 전주권역 최대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상반기 7285억원 조기 집행 자금순환

벤처·창업 기업 발굴·육성 경제활성화 주력

전북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사업 규모를 1조 2,43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7,28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지난해 조달사업 실적(1조 1,962억원) 보다 3.9%(468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업별로는 물품구매 9,292억원, 시설공사 3,138억원이며 약자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9,183억원, 지방기업 8,745억원, 여성기업 678억원 규모이

다.

조달청을 통한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 규모는 전년(6,496억원) 대비 36.24% 증가된 8,85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른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집행전담반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조달청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벤처·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역상품 개발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 할 계획이다.

도내 업체의 기술보유 현황을 업계와 유관기관에 제공해 업체 간 기술협업을 유도해 기술융합 신기술 제품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지정과 공공부문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청년인재, 우수조달물품추천 지원과 수출 지원 설명회를 통한 G-PASS기업 발굴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여행상품 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전통문화체험상품을 발굴해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 및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통식품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임중식 청장은 "조달사업목표를 1조 2,430억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LX사이클단소속 박상홍 선수,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클선수단이 흑한기 훈련과 해외에서 그동안 쌓은 기량을 바레인에서 한껏 펼쳤다.

LX사이클단소속의 박상홍 선수가 지난 2일 바레인에서 열린 '도로사이클 아시아 선수권대회' 남부 개인 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홍 선수는 개인도로 종목에서 153.6Km를 3시간 49분 16초에 달려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아시아 챔피언'의 저지 를 입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박선수는 지난 2월 1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제대회인 투르 드 필리핀(Tour de Filipinas)에 참가해 마지막 날인 21일 스테이지 203Km경 기에서 1위를 차지해 아시아투어와 필리핀대회 첫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알리나 있다.

장운호 감독이 이끄는 LX사이클단은 향후 4월 태국, 5월 인도네시아와 중국, 6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 가축질병 방역현장 점검

김태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3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 구제역, AI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백신, 생석회, 소독약 등의 방역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공동방제단 및 NF방역지원단 차량을 동원해 축산관련시설과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중이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고창부안축협 경제사업장에서 방역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제역, AI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임직원의 전사적인 방역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군산축협을 방문해 "가축질병을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방역활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11월 구제역·AI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 가동 중이며, 방역구역을 선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농협보유 광역 살포기 등을 동원해 지속적인 차단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총 31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6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54억원 규모, 총 31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기타의료용건물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부안군 백산면 소재 공장 등이 있다.

공매 참여 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9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전북도는 축산물 영업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축산물 위생교육을 오는 9일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군에 소재한 주요 지정교육장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

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3,800여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기존 영업자는 3시간, 행정처분된 영업자는 4시간, 신규 영업자는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